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벌리신 여성들을 항일무장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시키기 위한 활동

최 명 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항일무장투쟁시기 많은 조선여성들은 직접 손에 총을 잡고 남자들과 같이 산에서 풍찬로숙하면서 조국의 독립과 여성해방을 위하여 일제와 맞서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김일성전집》 제2권 279페이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여성들의 진정한 사회적해방을 이룩하자면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여성들을 무장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여성들을 항일무장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시키기 위한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들이 무장투쟁의 확대발전을 위한 군사임무수행에 적극 참가하도록 이끌어주신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들이 일제를 소멸하기 위한 전투에 참가하여 용맹을 떨치도록 하시였다.

여성들이 직접 손에 총을 잡고 밀림과 설한풍속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 맞서 싸운다는것은 실로 어렵고 간고한 투쟁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수많은 전투들에 녀대원들과 함께 참가하시여 용감히 싸우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로령전투에 참가하시여 녀대원들과 함께 육박전을 하시였으며 서강전투때에는 화공전술로 전투승리에 이바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악질적인 《정안군》놈들을 몽땅 살상포로한 로령대북전투의 승리를 총화하시면서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녀

대원들의 용맹스러운 전투행동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후 진행된 무송현성전투, 홍두산전투때에도 뛰어난 명사격술로 수많은 적들을 소멸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보위하시였다.

주체25(1936)년 8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무송현성전투때에 7명의 녀대원들과 함께 식사준비를 하면서 잘루목을 지킬데 대한 임무를 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적들이 달려들자 사령부의 안전을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하시며 녀대원들을 고무하시였다.

그러나 잘루목을 차지하는것이 전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것을 너무도 잘 아는 적들은 저들의 시체를 타고넘으며 악착스럽게 달려들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험한 순간에도 오직 사령부의 안전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며 적개심에 불타는 녀대원들을 지휘하시면서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시였다.

주체26(1937)년 설명절날에 홍두산밀영에서 불의에 달려드는 적대부대와와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당황해하는 대원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으며 달려드는 적 40명을 뛰어난 사격술로 소멸하심으로써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들이 작식대, 재봉대의 임무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오에서 녀대원들은 작식대, 재봉대, 병원 등의 임무를 많이 맡아 수행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대원들이 기본적으로 맡고있는 작식대, 재봉대, 병원 등의 사

업이 항일무장투쟁과 유격대강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모든 녀대원들이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부대의 친어머니, 누나가 되어 대원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주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대원들에게 우리의 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부대의 작식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전투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모두 조선혁명을 책임진 투사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부대살림살이를 더 간지고 알뜰하게 해나가자고 호소하시었다.

주체25(1936)년 어느날 새벽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급히 매복전에 나가게 되었는데 작식대원들이 미처 식사를 보장하지 못하여 부대의 행동에 지장을 주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김정숙동지께서는 곧 미시가루를 모아가지고 마중나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대원들에게 공급하시고 그날 저녁 작식대원들을 도와 푸짐한 식사를 보장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작식대일은 사령관동지께서 동무들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혁명임무이라고, 사령관동지께서 맡겨주시는 혁명임무에는 크고작은것이 따로 없다고, 그런것만큼 동무들은 사령관동지께서 맡겨주신 작식대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그것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그후 김정숙동지께서는 무거운 작식도구들을 지고 먼길을 헤쳐와 대원들의 식사를 보장한 작식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높이 치하해주시고 작식대일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자면 대원들의 친어머니, 친누나가 되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작식대뿐아니라 재봉

대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두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재봉대원들에게 유격대원들의 군복을 생산보장하는것이 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군사정치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새겨주시었으며 불리한 조건에서도 그들이 맡은 군복생산을 어김없이 수행하여 혁명군대오의 면모를 확립하고 군사작전수행의 물질적담보를 마련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시었다.

주체27(1938)년 10월 군복제작임무를 받았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번 군복제작전투는 단순히 부대의 월동준비를 갖추기 위한것으로만 생각지 말고 대부대류동작전으로 적들에게 보다 큰 타격을 가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새로운 전략적 방침실현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라는것을 명심하고 일을 짜고들어 기한내에 어김없이 끝내도록 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8(1939)년 가을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600벌의 군복을 만들데 대한 임무를 받으시고 녀대원들과 함께 헌신적인 투쟁으로 열흘이나 앞당겨 수행하심으로써 대부대선회작전방침을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대원들이 작식대, 재봉대임무뿐만아니라 부상병치료임무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시여 그들이 자기 자신보다도 혁명동지들과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뜨거운 마음을 키워나가도록 하시었다.

이와 같이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들을 무장투쟁의 실천속에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의한 의지를 가진 혁명가들로 준비시키시었다.

녀성들을 항일무장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시키기 위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부녀회원들과 녀성들이 항일무장투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하

신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녀성들이 유격구를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 굴함없이 투쟁하도록 하시였다.

부녀회원들과 광범한 녀성들을 유격구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으로 적극 불러일으키는것은 그들이 남자들과 같이 무장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권리를 자기 힘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남녀로소 할것없이 유격구방위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부암과 왕우구, 삼도만, 처창즈 등 유격구마다에서 전체 부녀회원들과 녀성들이 적들의 《토벌》책동을 짓부시는 가렬치절한 전투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지켜 굴함없이 싸우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2(1933)년 2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부암유격구방어전투에 참가하시여 남달리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시면서 앞장에서 부녀회원들과 녀성들을 이끄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부녀회원들과 녀성들이 일제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쑈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유격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내도산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서 녀성들과 함께 포탄이 떨어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용감한 전투행동으로 마을의 녀성들을 불러일으키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싸우는 유격대원들에게 식사와 더운물도 날라다주시였다.

당시 내도산마을에는 후방부문 성원들과 40여명의 전투원들밖에 없었으므로 유격대원들은 일본군 박격포부대, 위만군, 경찰 등 800여명으로 무어진 적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내도산인민들속에서 군중정치사업을 적극 진행하여 그들이 싸우는

유격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고 반일투쟁에 힘차게 나서도록 하시는 한편 -40℃의 혹한속에서도 몸녹일 사이도 없이 바깥에서 밤낮을 보내며 인민들과 같이 탄약과 식사를 운반하시였다. 그리하여 여러날동안 계속된 내도산전투에서 유격대는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어 300여명의 적을 살상하고 무기와 전투기재들을 로획하였다.

김정숙동지의 활동에 고무되어 부녀회원들과 녀성들은 유격구를 지키기 위한 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부녀회원들은 경계근무도 자진하여 맡아나섰고 산나물을 캐다가 적을 발견하는 경우 적들을 자기에게로 유인하여 근거리인민들을 보위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녀성들이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원호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수많은 청장년들이 손에 총을 잡고 조선인민혁명군대오에서 싸우고있는 조건에서 그 원호를 담당해야 할 력량은 부녀회원들이며 원호사업의 내용과 그 활동의 특성으로 보아도 녀성들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성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원군사업에 헌신적으로,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5(1936)년 2월 내도산반일부녀회 결성모임에서 부녀회원들은 마을인민들을 발동하여 앞으로는 식량과 천, 신발, 소금을 비롯한 물자들을 혁명군에 보내주기 위한 원호활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주체26(1937)년 봄 장백현 도천리부녀회 결성모임에서는 혁명군을 적극 원호하는것은 조선민족으로서 응당한 도리라고 하시며 녀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적들의 야수적인 탄

압속에서 목숨을 내걸고 진행해야 하는 이 어려운 투쟁의 앞장에 서시여 적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헤치시며 원호사업으로 부녀회원들과 여성들을 이끄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6(1937)년 6월 말 장백현 하강구일대에서 활동하시면서 신파장날을 리용하여 구입한 많은 물자를 배로 날라 그밤으로 산속으로 운반하는 사업으로 부녀회원들과 여성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무거운 짐을 지고 앞장서 밤길을 헤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밝아오는 동녘하늘을 가리키시며 조국땅에 밝은 아침이 밝아온다고, 우리는 반드시 저 아름다운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가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장백일대와 신파를 비롯한 북부국경일대의 부녀회원들과 여성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원군열의를 지니고 조직된 역량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원호사업을 벌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부녀회원들과 여성들을 적정자료수집과 정찰활동에 참가시키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적들의 주의가 적게 돌려지고 빨래와 식사보장, 접대 등으로 적병영이나 통

치기관에 깊이 들어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헌병대, 경찰서, 파출소, 군청과 같은 일제의 폭압기구와 통치기관들의 배치정형, 일제무력의 동향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정찰하여 제때에 통보해주도록 하시였다.

특히 해당 지역의 소부대, 소조들이 혁명조직들과의 연계밑에 여성들을 정찰활동에 인입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6(1937)년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진공작전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작전에 필요한 적후정찰에 도전리와 신파일대의 혁명조직들 특히 여성들도 적극 참가시키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신파의 지하조직성원들과 부녀회원들을 발동하여 신파일대의 적의 무력과 군사시설배치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시는 한편 몸소 압록강을 넘나드시며 강의 너비와 깊이, 강물의 속도도 가늠해보시였으며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진출과 철수에 유리한 도하지점들도 정찰하신 다음 지체없이 사령부에 보고하시였다.

이와 같이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우리 여성들은 무장투쟁의 확대발전과 유격대오의 강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한 성원으로서 일제와 과감히 맞서 싸워나갈수 있게 되었다.